

보도시점 2026.9.9.(수) 06:00
< 9.9.(수) 석간 >

배포 2026. 9. 8.(화)

중견기업 45개사에 5,480억원 자금 지원

- 중견기업 전용 융자 프로그램 「라이징 리더스 300」,

'26년 하반기 지원계획 확정 : 수출 중견기업 지원 18→28개사로 확대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우리은행은 중견기업 전용 융자 프로그램인 「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의 '26년 하반기 지원 대상으로 중견기업 45개사를 선정하고 총 5,48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 산업부와 우리은행이 '23년부터 공동 추진하는 융자 프로그램으로, 연 2회 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지원('26년 상반기까지 총 225개사 선정, 약 2조원 규모 대출 지원)

올해 하반기에는 중견기업의 금융지원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1) 신청 기업이 상반기 36개사에서 하반기 64개사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 지원기업을 35개사에서 45개사로, 지원 규모도 4,660억원에서 5,48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3) 특히 수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여 상반기 18개사에서 하반기 28개사로 확대 지원하였다.

*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1.5%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수출의 17.9% 담당

지난 7월 사업 신청 공고 이후 수출, 기술, ESG, AI 전환 등 4개 분야별 전문기관*의 추천과 우리은행의 금융 심사를 거쳐 콜마홀딩스(지주회사), 라이온켄텍(화학제품), 스태츠칩팩코리아(반도체 후공정) 등 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갖춘 중견기업 총 45개사를 선정하였다.

* KOTRA(수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술), 중견기업연합회(ESG), 한국산업지능화협회(AI 전환)

선정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300억원 규모의 대출과 최대 1.0%p의 금리우대 등 지원과 기업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중견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재은 (044-203-4360)
	중견기업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권지인 (044-203-4366)

참 고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 개요

□ 제도 개요

- '23년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산업부와 우리은행이 협의하여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 「라이징 리더스 300」* 마련

* 중견(후보)기업의 성장(Scale-up)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사다리 확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24.6, 관계부처 합동)」)

- 수출, 기술, ESG, AX 분야별 유관기관* 추천을 받은 중견(후보)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23~'27) 300개사에 총 4조원 대출 지원 목표

* KOTRA(수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술), 중견기업연합회(ESG), 한국산업지능화협회(AX)

- 年 2회 공고절차를 거쳐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출 최대 300억원, △1.0%p 금리우대, 금융 컨설팅 등을 제공

□ 그간의 성과

- '26년 상반기까지 225개사를 선정하고, 약 2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 신산업 추진 등을 지원

* A사(자동차부품) : 300억 원 지원받아 인도 현지 공장 설립 및 신시장 진출
B사(정보통신) : 280억 원 지원받아 신규 AI 사업 R&D 및 사업화 착수

□ '26년 하반기 선정 결과

- 신청 공고(7.27.~8.14.) → 1차 심사(8.14.~8.24, 우리은행) → 기관별 추천(8.14.~8.24, 4개 기관) → 2차 심사(8.25~9.4, 우리은행)를 거쳐 총 45개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

* 수출 28개사, 기술 4개사, ESG 10개사, AX 3개사 선정(중견 36개사, 후보기업 9개사)

□ 향후 계획

- 선정된 중견(후보)기업은 9월부터 '27년 3월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총 5,480억원 규모 금융지원 계획